

외투기업 전북 투자 잇따라

삼양화인테크놀로지·도레이 등 공장 착공·준공

오는 4월부터 전북도내 글로벌 외투 기업들의 공장 착공·준공이 잇따라 이어진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는 '삼양화인테크놀로지'와 '도레이', '솔베이' 등이 투자해 착공한 공장들의 준공식이 올 하반기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올해 4월 김제지평선산단에서 프랑스의 '로얄캐닌'이 기능성 펠렛 생산 공장 착공이 계획돼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미쓰비시화학과 삼양사의 합작신설법인인 '삼양화인테크놀로지'는 올해 4월 준공식을 갖을 예정이다.

'삼양화인테크놀로지'는 군산자유무역지역에 52,876㎡(16,000평)의 부지에 연간 30,000톤의 이온교환수지(화학, 바이오, 반도체 산업 등의 제품 생산

시 품질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난 2014년 8월 착공해 약 20개월만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고분자 첨단소재인 PPS수지와 PPS컴파운드, PPS생산의 3개 공정을 모두 갖춘 일본 '도레이'사의 생산공장이 오는 7월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준공식을 갖을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되는 '도레이'사의 공장은 21,500㎡(약 65,000평)의 규모로써 지난 해 7월 착공을 시작해 만 2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벨기에의 화학·플라스틱 분야 국민기업인 '솔베이'가 친환경 첨단 화학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99,000㎡(약 30,000평) 규모의 부지에 세워지는 공장은 지난해 4월 첫삽을 때

약 1년 8개월만에 준공식에 이르게 됐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로얄캐닌'사의 '기능성 펠렛' 공장이 올해 4월부터 김제지평선산단에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공장은 98,021㎡(약 30,000평)의 부지에 약 650억원을 투자해 건설되는 공장으로 도는 이번 공장 착공으로 약 7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얄캐닌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맞춤 영양식 프리미엄 펠렛 생산업체로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7천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 12개 공장을 두고 있다.

도 유희숙 경제통상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빠른사일내에 우리지역에 정착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이스타항공이 17일 항공기 1대를 추가 도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보잉737-800기 1대 도입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이 2016년 첫 신규 항공기를 도입했다.

이스타항공은 17일 항공기 1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아날 도입한 항공기는 보잉737-800(189석)기종으로, 등록기호 HL8062를 달고 국제선 스케줄에 투입 운영된다.

이스타항공은 총14대의(B737-700기종 3대, B737-800기종 11대) 항공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총7대의 항공기를 도입해 연내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 항공기 도입을 바탕으로 이스타항공은 오는 28일부터 인천-타

이베이(타오위안) 주4회, 청주-닝보 주3회 노선을 신규 취항하며,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통해 제주-취안저우(주3회), 양양-선양(주3회)/광저우(주3회) 노선을 배분받아 연내 신규 취항을 앞두고 있다.

이스타항공 김정식 대표는 "최신 기종의 항공기 도입을 통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수도권 지역과 함께 지방공항을 통한 신규 노선을 연내 운영할 예정이다. 신항행 대중화에 가장 선두에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중기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전주공고 등 도내 6개교 선정

전북지역 특성화고 6개교가 '2016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산업분야와 특성화고를 연계해 예비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 체계적 중소기업 인력유입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고는 전주생명과 학교, 이리공업고, 삼례공업고, 부안제일고, 전주공업고, 줄포자동차공업고 등 6개교다. 이들 학교는 특성화 교과과정 개발, 1팀-1프로젝트 수행, 취업맞춤반 운영 등에 1억7,000만원 내외(학교당)를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018년까지 전체 특성화고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 "오는 2018년까지 전체 특성화고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며 "도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전북지역 중소기업 특성화 인력양성사업은 4개업체에 총 6억 4,000만원이 지원됐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전 맞춤형교육을 통해 177명이 지역에 취업했다. /신광영 기자

전개공 결산감사 회계법인 참여

전북개발공사는 앞으로 공사 결산감사 회계법인을 위탁업체 평가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등에 대한 회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법적으로 3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었으나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공공임대는 해당되지 않아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북개발공사가 먼저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강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18일 예정인 익산송화 지인리노아파트 위탁관리업체 평가에 대해서 공사 결산감사업체인 회계법인이 참여하며 나머지 5개 아파트 평가에도 관리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에 나선다.

아울러 전북개발공사는 임차인대표와 관리소장의 윤리교육을 고취하고 관련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청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관리비 없는 청렴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의 평가와 감사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 등이 관리업무 투명성 확보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임주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신광영 기자

조정석 표준규격등급 두가지 늘려

제품 품질보다 최저 가격경쟁력만 부추겨 R10이상-R15미만·R20이상-R30미만 추가

조달청이 건축, 토목 등 안전과 경관분야 소재로서 각광받는 조정석의 품질향상을 위해 새로운 표준규격 등급을 만들었다.

최근 조정석은 도시미관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선진국형 하천 복원 작업, 공원 경관조성 등 다양한 건축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달리 현재

조정석을 구분하는 등급은 굴림도에 따라 하천제방하부용, 사면보호용으로 R5이상~R15미만, 하천제방상부용, 아파트 및 공원용R15~R30미만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으로만 구분돼 왔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구분은 업체들이 조정석을 제품의 품질보다는 최저 가격경쟁력만을 부추기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달청은 '중합소평물 MAS 계약물품 품질관리

를 위한 표준규격 제정'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해 표준규격 이외 추가 규격항목을 수용했다.

현재 R5이상~R15미만, R15이상~R30미만으로 두 가지로만 구분되던 표준규격 등급에 R10이상~R15미만, R20이상~R30미만이라는 등급을 추가해 네 가지로 구분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단계표준 등급 세분화는 조정석 업체들이 다양한 규격으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지만 가격은 유지되는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페이퍼코리아·한화에너지, 월명산 생태복원 나서

편백·측백나무 심어

군산관내 기업체들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피해를 입은 월명산 생태복원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18일 페이퍼코리아 임직원 100여명은 월명공원 청소년 수련원 입구에서 편백나무 500그루를 심었다.

이날 나무심기는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훼손된 월명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숲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의 힐링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페이퍼코리아는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단기간 산림복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숲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월명공원 가꾸기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 재선충 피해로 지역 주요 공원의 산림이 벌목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시민 휴식처 제공과 후손에게 푸른 자연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해 묘목 식재행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은 17일

시민과 함께하는 제7회 식목일 기념 행사에 참여해 측백나무 200여본을 식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 직원은 "직원들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어 보람된 하루였다"며 "월명공원이 건강한 산림으로 복원돼 시민들의 소중한 녹색 힐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17일 월명공원에서 유관기관, 단체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측백나무, 이팝나무 2850본을 식재하는 제7회 식목일 행사를 가졌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銀, 전북애향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7일 전북애향장학재단(이사장 임병찬)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1992년 전북애향장학재단 설립 이후 올해로 25년째 매년 5천만원씩 총 12억 5천만원을 기탁해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전북은행 오병진 부행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기탁이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향토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2010년 12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문화활동지원사업, 불우소의 계층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영수 기자

개보다 고양이 용품 판매 급성장

티몬은 반려동물 카테고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특히 고양이 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소셜커머스 최초로 반려동물 카테고리를 오픈한 이후 티몬의 반려동물 카테고리 매출은 2015년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또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72%

성장했다. 이 가운데 고양이용품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반려동물 카테고리 성장을 이끌었다. 2014년 고양이 용품의 매출 규모는 강아지용품의 1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0% 수준까지 높아졌다.

강아지용품이 올해 106%가량 성장한 반면 고양이 용품은 355%로 성장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0성주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